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외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5호)

○ 2026. 09. 15.
○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08.19. 서초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6.08.21.

다. 상 정 일 자 : 2026.09.11. ~ 2026.09.15.(3일)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제352회 정례회 중 제4차~제6차 행정복지위원회(3회 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 **문화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자 : 문화행정국장 직무대리 이강이)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밝은미래국 소관** (제안설명자 :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주민생활국 소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성훈, 최종열)

▶ 생략 :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4.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질> 매년 휴직자 증가에 따라 한시임기제 인력이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가 추경이나 예비비를 통해 반복적으로 조정되고 있음. 휴직자 증가 추세를 사전에 예측하여 정원에 반영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인력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71쪽)

답> 2025년 휴직자는 222명이었으나 2026년 8월 현재 250명으로 28명 이상 증가하여 당초 예상보다 휴직자가 크게 늘어났음. 이에 따른 인력 공백을 한시임기제로 보충하기 위해 관련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 현재 공무원 정원은 조례에 따라 1,633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정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음.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연말 정원 조정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인력수요를 보다 면밀히 예측해 대응하겠음.

[문화관광과]

질> 반포3주구에 미술관·문학관·소극장을 건립하는 것은 인근 심산기념문

화센터 등 기존 문화시설과 중복 우려가 있고 약 250억원의 규모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73쪽, 사업별설명서 11쪽)

답> 서초구에는 구립 미술관이 없고 주민과 지역 예술가들로부터 미술관 건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음. 주변시설과 차별화하기 위해 미술관·문학관·소극장이라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민 등 광역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과 이용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질> 당초 재건축 과정에서 해당부지를 기부채납받을 때 건축물까지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73쪽, 사업별설명서 11쪽)

답> 당시 반포3주구 내 주민센터 부지는 공공청사 부지였으나, 인접한 1·2·4주구에 신축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중복 청사를 피하고 향후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대지 형태로 기부채납 받게되었음. 당시 특정 시설을 미리 정하기보다 향후 행정환경과 주민수요에 맞춰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임. 기부채납 부지는 당초 주민센터 부지 383㎡에서 현재 850㎡로 확대되었으며, 공공용지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음.

질> 2027년 1월 투자심사를 목표로 한다면 일정이 상당히 촉박한데,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73쪽, 사업별설명서 11쪽)

답> 아직 용역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시설별 법적 요건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 관련 부서와도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2027년 1월 심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지만, 1월 심사가 어려울 경우 작년기준 2월 심사 예정을 목표로 이에 대비하고자 함.

[자치행정과]

질> 2023년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6억 5천만원 중 집행잔액 약 5,598만 6천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BI사인과 안내표지판 설치가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75쪽, 사업별설명서 12쪽)

답> 2023년 12월 서울시로부터 6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2024년 명시이월 하였음. 시설비와 사무관리비로 나누어 집행했으며, 용역기간 연장 등에 따라 일부 금액을 2025년까지 사고이월하여 집행한 후 약 5,598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음. 해당 잔액을 사법정의 허브의 종합 안내판과 이정표 등 시설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며, 사업의 시급성 때문이라기보다는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실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올해 집행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한 것임.

[체육진흥과]

질> 원지동 파크골프장 조성에 12억 1,700만원을 추경 편성한 사유와 청계산 수변공원 파크골프장보다 사업비가 큰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77쪽, 사업별설명서 14쪽)

답> 원지동 파크골프장은 청계산 수변공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던 중 2024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의료과에서 병원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병원 부지를 활용해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하면서

검토가 시작되었음. 원지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서울시와 5:5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45대 규모의 주차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실, 퍼팅연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임. 총 공사비는 24억 3천만원으로 구비 부담분 12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음. 청계산수변공원은 약 5,000㎡ 규모로 공사비가 약 10억원이었으나 원지동은 약 7,000㎡ 규모이고 기존 시설이 없는 나대지에 평탄화·배수작업·전기·화장실 등 부대공사가 추가되어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음.

질> 2024년 11월부터 사업을 검토했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수요 조사와 부서 협의, 사업비 산출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77쪽, 사업별설명서 14쪽)

답> 서울시의 제안으로 2024년 11월부터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시가 제공한 유휴부지를 주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음. 추경 편성이 늦어진 것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편성 시기를 지나 올해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것임. 사업비는 해당부지의 현황과 필요한 공사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준으로 산정한 것임.

■ 밝은미래국

[일자리경제과]

질> ‘데모데이’와 ‘IR데이’의 성격이 혼재 되어있고, 전국단위 행사로 추진할 경우 서초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행사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인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83쪽, 사업별설명서 21쪽)

답> 데모데이와 IR데이의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 기획 단계부터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후속 투자 및 기업 지원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또한 전국적으로 서초구의 AICT관련 사업을 알림으로써, 우수기업 유치와 관내 AI기업에 대한 투자사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음. 향후 데모데이를 지속 추진할 경우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임.

질> 중·소상공인 대출지원과 골목상권 사업을 본예산에서 감액했다가 추경에서 다시 증액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83쪽, 사업별설명서 20쪽)

답> 중·소상공인 대출지원은 재정여건을 고려해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으며, 골목상권 사업 역시 선거로 인해 상반기 행사와 쿠폰 발행이 어려워 하반기 집행에 맞춰 추경에 편성했음. 다만 본예산에 연중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며, 향후 본예산 편성의 완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질> AICT데모데이, AI페스타, 스마트라이프워크가 유사한 행사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83쪽, 193쪽, 사업별설명서 21쪽, 23쪽)

답> 데모데이는 입주기업과 투자기관을 연결해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기업 중심 행사이고, AI페스타는 서초의 AI관련 정책과 기업을 주민에게 알리는 성격이며, 스마트라이프워크는 관내 혁신기업의 공동관을 구성해 기업과 기술을 홍보하는 행사임. 각각 대상과 목적에는 차이

가 있으나 AI산업 육성과 홍보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교육지원과]

질> ‘서초교육지원센터’를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이전 후 운영계획,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람. 특히 공간이 확대되는 만큼 교육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계획이며 기존 센터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89쪽, 사업별설명서 22쪽)

답> 자원봉사센터 이전계획 변경으로 서초교육지원센터의 이전이 조기에 결정되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9월 준공 일정에 맞춰 이번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하게 되었음. 공사비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과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실제 산정 기준은 연면적 313.3㎡임. 센터 이전 후에는 공간이 약 18.8평이 확대되는 만큼 디지털 미래형 강의실, 학생 라운지, 가변형 수업 공간, 전문 상담실 등을 조성하고 자유학기제 등 학생 대상 체험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기존 서초1동 주민센터 공간은 주민자치 및 편의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환원할 예정임.

질>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사용 잔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예산명세서안 140쪽)

답> 학교별 사업계획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원하고 있으며, 1천만원 이상 잔액이 발생할 경우는 시설공사 낙찰차액이나 사업변경 등이 주요 원인임. 방배초는 담장 설치가 취소되면서 잔액

이 발생했고, 서원초는 악기구매비, 서초초는 안전도우미 인력 충원이 어려워 잔액이 발생했음. 세화여중·고의 경우 교육청에서도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지면서 구에서 지원한 일부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사례임. 향후 교육청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용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후환경과]

질>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 기부금’ 사업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기업 홍보 조건이 있는지? 또한 계속적 사업이라면 향후 계획과 장비 임차비는 적정한것인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42쪽)

답> 기아자동차의 기부금은 매년 4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음. 올해도 4월 기부금 확정 후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8~12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환경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임. 학교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요청하고 있어 올해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음. 기업 홍보를 조건으로 한 기부는 아니며, 기아자동차 임직원들이 학생 및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고 안전관리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형태로 행사가 진행됨. 환경놀이터 운영을 위해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에 체험부스,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장비를 임차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됨. 임차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스마트도시과]

질>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교체를 위해 전화기 구매에서 임대로 변경할 수 있었다면 당초부터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93쪽, 사업별설명서 24쪽)

답> 본예산 편성 당시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KT 등 3개 통신사업자에 문의했으나 모두 전화기는 구매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음. 또한 다른 자치구에서도 구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은 일단 구매를 전제로 편성하되, 경쟁입찰 과정에서 임대방식이 가능한지를 다시 추진한 사항임.

질> 서초코인 추정 3,500만원의 산정 근거와 향후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명세서안 193쪽)

답> 서초코인 보전금으로 9월 1일 기준 약 9,100만원을 지출했으며, 연말까지 서울페이 전환 상품권 발행, 사용시설 보전금, 경품 구매 등을 고려해 약 3,500만원을 추가편성 했음. 회원 수가 2만명을 넘어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내년도에는 약 2억원 수준의 기타보상금 편성을 검토하고 있음.

■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약 7억1천만원이 통상적인 수준인지?

(사업예산명세서안 200쪽)

답> 복지정책과 사업의 상당 부분이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집행잔액

이 일정 비율 발생함. 다만 이번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 대규모 기능 보강 사업이 있어 반환 규모가 다소 커지게 되었음. 전체 반환금 중 약 4억 3,541만원이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잔액임.

질> 서초 청정케어사업에 800만원을 추가편성한 이유와 본예산부터 현실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97쪽)

답> 서초 청정케어사업은 저소득·고립·위기가구 가운데 저장강박이나 질병 등으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본예산 3,200만원 중 8월 기준 잔액이 약 2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약 10가구가 지원을 기다리고 있어 연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음. 청정케어사업은 당초 1가구당 평균 15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주거 환경이 매우 심각한 가구는 3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대상 가구와 사업비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가구별 비용 차이를 고려해 적정 규모를 반영하겠음.

[사회복지과]

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구비 추가지원 대상자가 72명인데 약 5억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다소 큰 규모로 보임.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사업예산명세서안 203쪽)

답> 구비 추가 지원 대상자는 72명이며, 2026년도 예산은 약 5억 32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대상자별 국고보조사업 이용량과 중도 중단 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돌봄에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서비스

단가 인상분과 신규 대상자 유입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임.

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과거에도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향후에는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지않은지?

(사업예산명세서안 203쪽)

답> 국고보조금을 먼저 소진한 이후 구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정확한 집행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있음. 다만 과거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보다 꼼꼼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음.

[여성보육과]

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이 실제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한 적은 있는지?

(사업예산명세서안 211쪽, 사업별설명서 32쪽)

답> 별도의 사업 효과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참여 건수 증가를 통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해 왔음. 향후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지원방식이나 사업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과 한부모 여성가정 지원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사업예산명세서안 211쪽, 사업별설명서 32쪽)

답> 아빠 육아휴직 지원은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 자체 사업임. 한부모가족은 소득 기준에 따른 아동 양육비 등의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

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구 자체 사업인 아빠 육아휴직 사업은 시행 6년차인 만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음.

[어르신행복과]

질> 서초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지원 추경편성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7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나머지 5개월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경 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사업예산명세서안 217쪽, 사업별설명서 35쪽)

답> 서울시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었고,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또한, 복지시설 인건비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 여건과 사업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향후에는 사업 추진 가능성과 소요 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하고, 불필요한 추경 편성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음.

질> 경로식당 급식비 부족분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서울시 시비가 감액된 부분을 구비로 보완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예산명세서안 217쪽, 사업별설명서 35쪽)

답> 양재·방배·중양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이용 인원이 각각 일평균 약 180명, 400명, 300명 수준이며, 식재료 가격 상승에도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영양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단가를 유지하면서 구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음. 방배노인복지관의 경우 시비 운영비가 감액되면서 부족분을 구비로 보완하는 상황도 함께 발생하게 되었음. 방배복지관은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당초 약 10억 8천만원의 가내시가 내려왔으나 최종 확정내시 과정에서 약

6,600만원이 감액되었음. 이에 따라 부족한 운영비를 구비로 보완하게 되었고, 여기에 경로식당 급식비 부족분까지 반영되면서 구비 증액 규모가 커지게 되었음.

질> 급식비 부족분을 운영비에서 돌려쓰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사업예산명세서안 217쪽, 사업별설명서 35쪽)

답>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향후 급식단가와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경로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부족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수정동의안 발의 (발의자 : 정지광 위원)】

- ▶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 중복계상으로 인한, 복지정책과,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1 재산매각 수입,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성심원(중간의 집) 매각수입 총 1건, 5억 8,601만 1천원을 감액하고,
- ▶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변동없으며,
- ▶ 삭감된 세입예산 5억 8,601만 1천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함.

6. 수정안 의 요 지 : 별첨(심사조정내역 참조)

-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만장일치)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체계짜구정리내용 : 없음

(별첨1)

행정복지위원회 조정내역

■ 일반회계

가. 세입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명	예산과목		통 계 목 (비목)	예산액	증·감	비고 (상임위원)
		세부사업	편성목				
139	복지정책과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03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성심원(중간의 집) 매각수입	586,011	△586,011	-
					586,011	△586,011	-
조 정 액 합 계					△586,011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5억 8천 6백 1만 1천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변동 없음.

삭감된 세입예산 5억 8천 6백 1만 1천원을 예비비에 반영함.

■ 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